연개소문[淵蓋蘇文] 연개소문은 포악한 독재자였나?

미상 ~ 665년(보장왕 23)



삼국사기 연개소문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연개소문의 가계(家系)

연개소문의 성(姓)은 '연(淵)'씨 혹은 '천(泉)'씨인데, 스스로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대중을 현혹시켰다고 한다. 관련사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그의 가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동부대인(東部大人) 대대로(大對盧)였다는 정도만 언급되어 있다. 관련사료

그러나 1923년 중국 하남성 낙양에서 연개소문의 장남 천남생(泉男生)의 묘지명이 발견되면서 그 가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묘지명에서는 천남생의 증조부는 자유 (子遊), 조부는 태조(太祚)로 모두 막리지(莫離支)를 역임하였고 아버지 연개소문은 태대대로(太大對盧)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남생의 조부와 부친인 개소문은 군권을 쥐고 나라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2 연개소문의 집권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장성을 축조 중이었는데 영류왕은 천리장성 축조의 감독을 연개소문에게 맡겼다. 관련사료 이것이 642년 10월의 일로, 연개소문의 이름이 사서에 첫 등장하는 내용이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의 감독으로 떠난 사이 영류왕과 여러 대인들은 연개소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었다. 관련사료 연개소문은 평양으로 돌아와 군대를 점검한다는 것을 핑계로 대신들을 불러 모았고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관련사료 이어 궁궐로 들어가 영류왕까지 시해하고, 관련사료 영류왕 동생의 아들인 장(臧)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다. 연개소문은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였고, 관련사료 이후 국정 전반을 운영하였다.

3 연개소문의 외교 정책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라에서 백제와의 전쟁에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김춘추를 파견하였다. 관련사료 그러나 실제로는 김춘추가 사위 품석(品釋)이 성주로 있었던 대야성(大耶城)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하러 갔던 것이다. 관련사료 연개소문